

# 농업총남에서 1년만에 외자유치 1위 '경제우뚝'

## 올해 534개 기업유치 4만2천개 일자리 창출

###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전국 200여개의 풀뿌리 지역신문 회원사들로 언론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경기의 이평선 총남지역신문협회 회장)는 지난 8월30일 이원구 총남지사사를 만나 '총남도가 1년만에 농업도에서 어떻게 외자유치 전국 1위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와 그동안 소외 등한시 됐던 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와 찬란했던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백제문화제'와 관련해 이원구 총남도지사사와 만나 그 내용을 들어왔다.

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난해는 13억7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총남이 전국 1위를 했고, 올해 목표액이 12억달러인데 상반기까지 약 10억달러를 유치해 목표액의 83%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9월초에 경제부지사를 임용하고 우수 공무원 16명을 투자유치에 전진 배치시킬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임기 목표액인 60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들어 지금까지 수출액이 259억 달러로 전국 3위,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남도의 기업유치 목표는 450개 기업인데 현재 534개의 기업을 유치해 118%를 달성해 약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 ▶백제문화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는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공주 공나루와 부여 백제역사단지 등에서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창 준비중에 있습니다.

### ▶백제문화제를 국제화 명문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잃어버린 대백제 부활의 용대한 출발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100여명의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

백제문화 환타지, 백제향, 백제문화 패션쇼, 백제문화유산 조형물 퍼레이드와 공연 퍼포먼스를 가미한 세계적 카니발형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더욱이 세계속의 백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중국 허베이성 예술단, 장수성 예술단, 예멘조선족 예술단, 캄보디아 씨업티우 예술단, 일본 이시가와현 무용단, 일본 오사카 왓소 축제단, 프랑스 민속공연단 등 해외 예술팀단 7개팀 227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 ▶백제문화제와 일본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지난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하고 화자와 기술자, 예술인을 파견해 아사카 문화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제문화제에 일본 앞소문화교류 협의회를 비롯 쿠마모토현과 일본의 관서 관동지방의 1500여 관계자를 유치해 일본의 뿌리가 백제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데에 이번 백제문화제의 큰 의미중 하나입니다.

### ▶백제문화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동안 백제문화제는 부여와 공주에서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열렸는데 우리 총남발전연구에서

연구한 결과 부여에서 열린 문화제에 지난해 8억원을 투자 4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한 100만명이 찾아오면 숙박업계 및 음식점, 지역 농특산물 판매, 운송수입 등 약 2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원구 총남도지사 경력

이원구 총남도지사는 20대 초에 제15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관직에 첫발을 디딘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에 참여했다. 이후 경찰로 전직하고 그는 약관의 나이인 31세에 흥경경찰서장을 지냈고 이후 미국 LA한국총영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거쳐 42세에 충북 지방경찰청장, 43세에는 총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45세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2선을 거치는 동안 그는 대표비서실장, 대변인, 원내총무, 농수산위원과 재경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시인단체로부터 5년 연속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원에서 석사를 국내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경기대학교 교수로서 3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국 UCLA대학교 교환교수로 출연해 났다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총남도지사로 당선됐다.

한국지역신문 총남협회 회장 이준순 부장

###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1 한서커텐

## 아파트·주택·상가 등 토탈인테리어 전문



대표 한연자

한서커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63-14 대표: 한연자)은 커텐·벽지·장판·조명·버티칼·싱크대·리모델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는 토탈인테리어 업체다.

한서커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63-14 대표: 한연자)은 커텐·벽지·장판·조명·버티칼·싱크대·리모델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는 토탈인테리어 업체다.

한서커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63-14 대표: 한연자)은 커텐·벽지·장판·조명·버티칼·싱크대·리모델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는 토탈인테리어 업체다.

## 고객방문시 최대한 친절과 앞선 서비스 제공 견적에서 설계·시공까지 고객위주 운영 자랑

도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농촌 여성들을 위한 홈패션 강의를 시작하면서이다.

그 당시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는 1년에 4회로 약 40여명이 참석해 수강했으며 지피 가는 법이나 옷 수선 등 단순한 과정을 강의하는 단계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대표는 홈패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서울에서 1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해 사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게 된 한 대표는 이 지역에 커텐 전문점이 없어 서울이나 의정부까지 나가서 커텐을 맞춰오는 것을 보고 지역에도 커텐 전문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서커텐을 개업하게 되었다.

한서커텐의 상호 한서는 부부의 성을 따서 만

들었다고 한다. 부부가 하나되어 서로 열심히 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지붕개량·부엌개량·식생활 개선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개선사례발표대회에서 당시 포천군 대표로 참가해 2등을 했을 정도로 농촌 환경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생활개선회 활동과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20여 년 넘게 봉사단체나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한 대표는 "다년간 봉사를 해왔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매력도 있다. 지금까지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오랜 기간 한서커텐을 운영하면서 봉사하는 마음만큼 영업은 자신 없지만 고객들이 업체를 방문했을 시에는 최대한 친절과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실속 있는 가격제공으로 견적부터 설계·시공까지 고객위주의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 대표는 선단동에 거주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분과장, 적십자회원, 청소년 선도위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분과 위원으로 지역에서 미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까꼬뽀꼬(원장 이정숙)와 베토너(원장 유진숙) 등의 도움으로 분도마을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미용 봉사도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분과 위원회에 서숙식, 이음백 위원은 매월 자비를 들여 정기적으로 독거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김남현 계장의 선형이 돌보아다며 운영하고 있는 한서커텐보다 선단동 주민자치위원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누렇게 익어 가는 황금들녘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든다. 수확의 기쁨과 함께 집안 실내분위기를 바꿔본다는 기대감속에서 한번쯤 한서커텐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문의 : 031)542-2234 HP:018)381-2234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한서커텐은 커텐·벽지·장판·조명·버티칼·싱크대·리모델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는 토탈인테리어 업체다.

### 행복한 보편이야기 8

##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지난 호에 이어 유방암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모유수유의 기피와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높다고 한다. 경구피임약이나 에스트로겐 복용 등은 심장혈관질환 및 유방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유방암의 증상으로는 초기증상이 없으며, 유방종괴가 만져지므로 모양과 크기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유두, 유방 피부가 변화한다.

다음은 자궁경부암으로 한국인의 여성암 4위, 1997년 이전 상피내암종(CIS) 포함하여 1위였다. 원인으로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경구피임약, 흡연 등이 있다. 증상은 무증상으로 부정기 자궁 출혈, 냉대하 등이다.

근래에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심근경색증을 알아보자.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것! (관상동맥이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을 말한다) 동맥경화증이 있는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어 지속적인 혈류가 차단되고 심근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심근괴사 되는 것이다. 급격하고 심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1시간 이내의 치료가 생, 死를 가늠한다. 미 치료 시 3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알아보면,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은 수도관처럼 좁아져 있는 상태이후 육체적 활동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여기에 관상동맥우회술이란 녀석이 등장하게 된다. 이 관상동맥우회술은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다리, 허벅지 등에 있는 정맥을 잘라내어 연결시켜 주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로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에 잘라낸 철사선을 통과 시킨후 철사선을 통해 풍선을 좁아진 부위

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풍선을 팽창시켜 좁아진 혈관을 넓혀 준다. 그 외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회전 축상반 절제술, 심장판막 수술, 인조혈관 치환술등의 치료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란 녀석은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녀석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었다. 증상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따른 수시 간호 상태로 한쪽 팔, 다리나 양팔 다리가 마비증상을 나타내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다.

수술 방법에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이라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흔히 보는 단어가 된다. 백혈병 등 고용량의 항암제와 전신 방사선 치료 시 조혈모세포 파괴로 정상세포로의 복구가 불가능해 지는데, 이 때 타인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환자의 골수에 생각되어 정상 혈액 세포를 다시 만들어 내게 된다.

조혈모세포를 37도에서 재빨리 녹여 환자의 중심정맥을 통해 주입을 한다.

말기 신부전증이란 녀석은, C 리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에 해당이 되어 주보험에서 사망 시에 지금 받는 보험금을 선 지급 받게 되는 중대한 질병이다. 신장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로 당뇨병,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약물남용 등이 주원인이 된다. 양쪽 신장이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신부전으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 가 매우 어려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신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정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스크류 부위 청소작업 중 발목 협착·절단

### ▶재해발생 개요

2007년4월16일 새벽2시45분경 00철도공사 현장에서 터널공사 협력업체 소속 배치플랜트 조차원인 피재가 배치플랜트의 스크류 수평 전송라인인 스크류 부위 청소작업을 하던중 스크류에 오른쪽 발이 밀려 들어가면서 절단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정지 미실시 BPO 생산된 스크류를 수평 전송하는 스크류 부위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협착 및 배인 등의 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운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준수. 나. 방호덮개 상태 미흡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위험부위인 스크류부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청



소중 재해발생.

▶중중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의 청소 및 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준수 수평전송 해주는 스크류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 부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진행 준수. 나. 작동중인 기계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유지 철저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 ■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이런 무엇이고 소득기준은 무엇인가?

## 직장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9%, 지역가입자 사업·근로소득의 9%

###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파악 연구과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에 법정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이 산정 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농·임·어업 소득으로 정하고 2종류 이상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엔 합산하도록 돼 있다.

보험료율은 현재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9%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계층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은 직장 가입자 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투명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법정부처로서 추진 중이다. 특히 2007.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단은 소득 축소, 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제청에 통보하고, 국제청은 그 세부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였다. 이 같은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더욱 투명해지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 문제도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